‘바둑 4국지’ LG배 세계기왕전 본선 돌입

26·28일 1, 2회전, 韓 16명·中 11명·日 4명·대만 1명 참가

한국 이세돌 등 베스트 10 총 출동…中 신예군단도 다크호스

제13회 LG배 세계기왕전 본선전(이하 LG배)이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25일 개막한다. 우승상금 2억5천만원을 내걸고 한·중·일·대만 등 세계 바둑 4강이 겨루는 국제대회이다.

이번 대회에 한국은 대거 16명이 출전, 총 참가자 32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19대1의 높은 경쟁률 속에서 치러진 이 대회 통합예선전에서 9명이 통과하는 선전을 펼친 결과다.

중국은 11명을 출전시켜 한국과 우승을 다툰다. 통합예선에서 전멸한 일본과 대만은 각각 4장, 1장의 국가 시드를 배정받았다.

한국은 시드 진출자 이세돌·이창호·박영훈·목진석·조한승·원성진 9단, 한상훈 3단 등 7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통합예선전을 통해 박정상, 최철한 9단, 백홍석 6단, 강동윤, 김형환 4단, 김지석 4단, 김형우, 최기훈, 김승재 초단 등 9명도 본선 무대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현역 세계 4관왕인 이세돌 9단. 올해 초 벌어졌던 삼성화재배를 석권하는 등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

또 관록의 이창호 9단도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이 대회 최다 우승(4회)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창호는 최근 춘란배·후지쓰배·응씨배 등 국제대회에서 선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LG배 우승 가능성이 크다.

박영훈, 목진석, 조한승, 강동윤, 원성진, 박정상, 백홍석, 한상훈, 등 한국 랭킹 3위부터 10위까지의 기사들도 언제든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기량이다. 랭킹 1, 2위인 이세돌 이창호를 포함해 국내 ‘베스트 10’이 총출동한 것이다.

LG배는 전통적으로 강자들 못지않게 새 얼굴의 활약이 두드러진 대회였기 때문에 젊은 참가자들의 선전도 기대된다. 한국의 김지석, 김형환, 김형우, 최기훈, 김승재 등 신참들도 ‘대형사고’를 칠 기세다. 중국 신예인 퉈자시, 스위에, 왕타오 등도 복병이다.

중국은 구리, 창하오 투톱을 중심으로 쿵제, 셰허, 왕레이 등 경험이 풍부한 프로기사들이 나섰다. 일본은 야마시타를 선봉으로 조치훈, 장쉬 등이 가세했지만 한국과 중국에 비해 무게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이다.

25일 개막식과 조추첨을 마친 뒤 26일 32강전을 치르고, 28일 16강전을 갖는다. 8강전 이상의 경기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13회 LG배 세계기왕전 본선전이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25일 개막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렸던 12회 대회 개막전 모습. 〈사이버 오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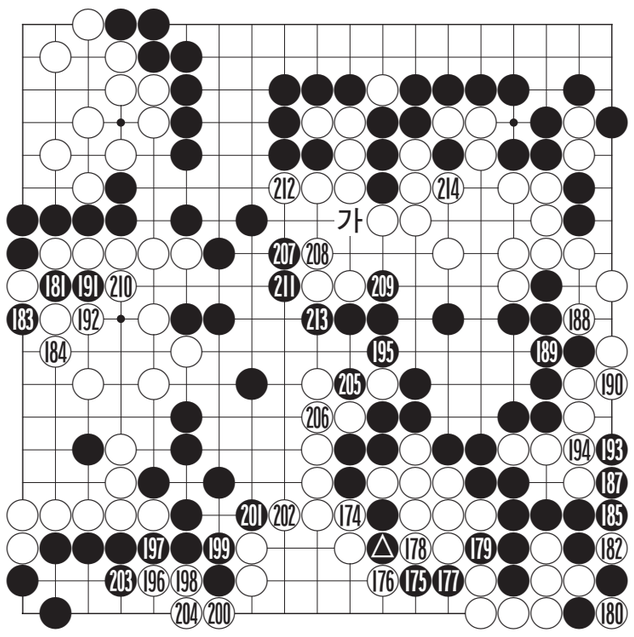
제4회 전남도지사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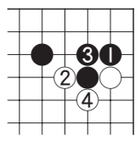
흥분해 버린 송홍석

8보(174~214)

전국 아마최강전 결승

白 박문흥 7단 黑 송홍석 7단





〈참고도〉

흑 ▲로 내려서서 백진 속에서 수가 나버린 형국이다. 고수들은 1집 손해보지 않으려다가 종종 대마가 잡히기도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단판승부에서는 반집을 지나 100집을 지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지금은 한집이라도 양보하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두대국자가 처절하게 버티고 있다. 백 174로 끊어서 예정된 대로 천지대패가 발생했다. 이 패는 흑보다 백의 부담이 훨씬 큰 패로 백은 만패불청을 할 수 밖에 없고 흑은 적당한 대가만 받아내면 되므로 흑의 꽃놀이 패나 마찬가지다.

이 패는 누가 보더라도 백의 무리. ’이제는 이겼다’는 생각이 들자 송홍석 7단이 흥분해 버렸다. ’패는 작은 곳부터 써라’는 격언이 몸에 배어 흑 181로 끊어 가장 작은 패를 써버린 것이다.

우하의 패는 백이 흑 두점을 놓고 따기만 하더라도 다섯집의 가치가 있다. 181은 일곱집짜리니 겨우 두 집이 이득인데 패를 하느라고 보태준게 있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만 것이다.

181로는 최소한 ’가’로 끊어 중앙 백 다섯점을 잡는 패를 서야 했다. 이쪽은 열세집 정도이므로 이쪽이 훨씬 이득이며 이랬으면 바둑도 끝이었다. 박문흥 7단은 이게 웬 떡이냐는 듯 잽싸게 182로 때려내 패를 해소해 버린다. 토끼가 용궁에서 빠져나온 격이다.

이것으로 아슬아슬하던 저울추는 백 쪽으로 살짝 기울었다. 이후에도 곡절은 있었으나 백의 승리가 결정되었다. 계가 해보니 백의 반집승. 진땀나는 승부였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세계 바둑 영재들 실력 겨뤄봐요”

내달 15일 ‘어린이 국수전’

한·중·일·러시아 등 8개국

바둑영재 1만 2천여명 참가

세계 바둑 꿈나무들의 축제인 제8회 대한생명배 세계어린이 국수전이 오는 6월15일~7월21일 서울 등지에서 펼쳐진다.

세계 최대규모의 어린이 바둑대회인 세계어린이 국수전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러시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 총 8개국의 바둑영재 1만2천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대한생명배 국수전 홈페이지(www.korealife.com/baduk)에 접수하면 된다.

초등바둑연맹회원은 전국바둑교실협회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

참가부문은 실력에 따라 최강부(아마 4단 이상), 유단자부(아마 1단~3단), 고급부(1~3급), 중급부(4~6급), 꿈나무부(7~9급), 샛별부(10급 이하) 등 6개 부문으로 나눠진다.

최강부 우승 어린이에게는 바둑영재 장학금 1천만원과 국수패, 아마 5단 인증서가 수여되며,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도 장학금 및 상장이 수여된다.

이 지역 예선은 광주 7월12일 장애인체육관(문의 062-652-2832), 목포 7월6일 목포실내체육관(문의 061-274-2687), 순천 7월12일 팔마체육관(문의 061-691-8825)에서 각각 열린다.

본선은 오는 7월21일 오전 9시30분 서울 대한생명 대한생명 63빌딩 별관에서 펼쳐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계 바둑 꿈나무들의 축제인 제8회 대한생명배 세계어린이 국수전이 오는 6월15일 개막한다. 사진은 지난해 대회 모습. 〈대한생명 제공〉

“인터넷 바둑 최강 가리자”

내달 15일 아마 최강전

“인터넷 바둑 최강자를 가리자”

한게임(http://www.hangame.com/)은 23일 “만 30세 이상의 아마추어 인터넷 바둑 이용자 중 최고수를 가리는 ‘2008 타운젠트 한게임 바둑 아마 최강전’을 오는 6월15~7월1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15일까지 한게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되고, 예선은 6월18일~7월3일까지 한게임 바둑 대국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6강전부터 결승전은 한게임 운영사인 NHN본사에서 오는 7월6일 치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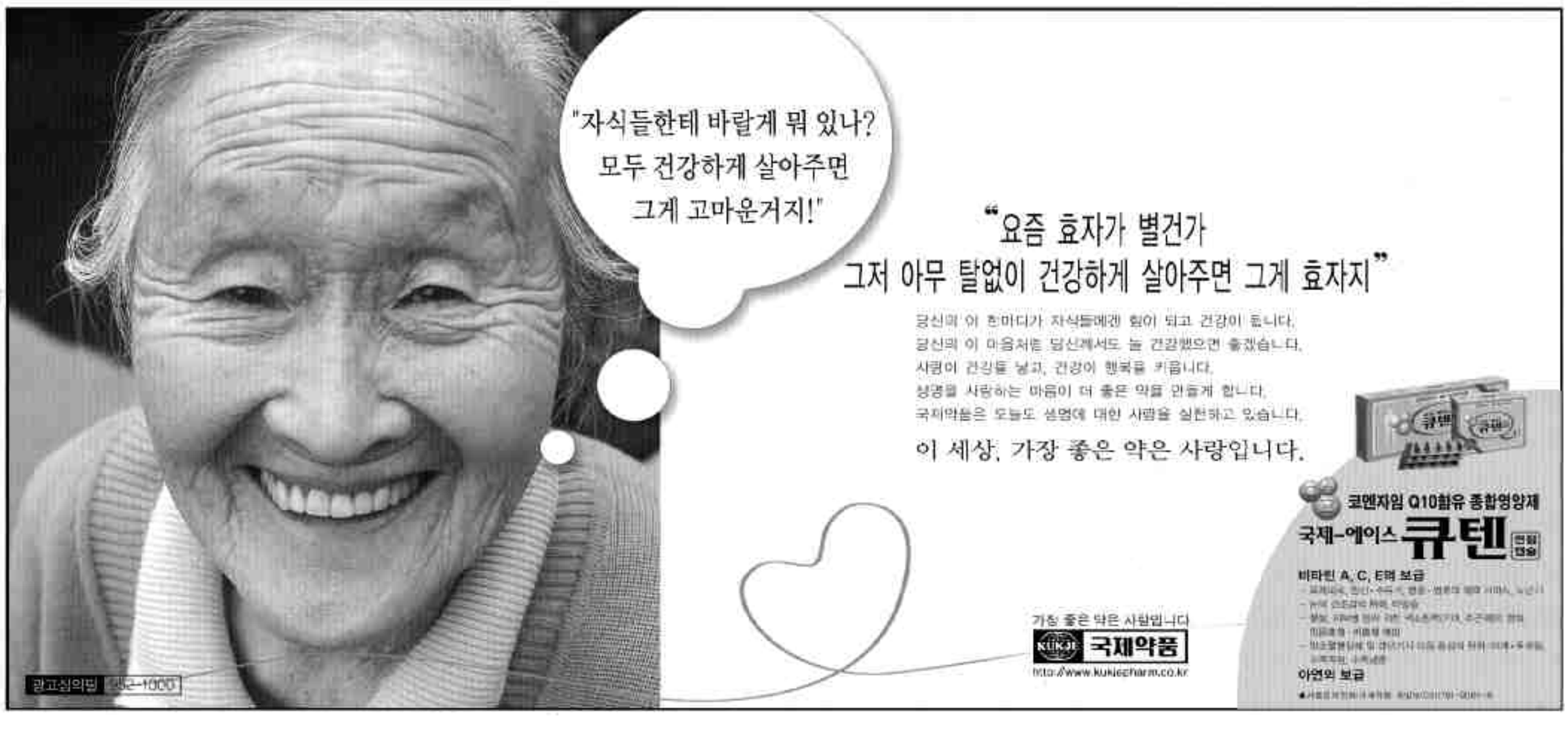
이번 대회 상금은 우승 200만원을 포함해 총 680만원이며, 16강 진출자 전원에게 남성 의류 브랜드인 타운젠트의 10만원 상품권이 수여된다. /오광록기자 kroh@

‘존폐 위기’ 국수전, 30일부터 대회 재개

후원사를 섭외하지 못해 개최가 늦어졌던 제52기 국수전이 기아자동차 후원으로 대회를 재개한다.

한국기원은 23일 “후원사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12명의 본선 진출자를 가리는 국수전 예선 1회전을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예선전을 통과한 기사들은 시드를 받은 박영훈 9단, 윤준상·이희성 7단, 최기훈 초단과 16강 토너먼트를 벌이게 된다.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3시간에 6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지며 상금은 우승 4천500만원, 준우승은 1천500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